

제7장 주교면(舟橋面)

주교면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 보령군 주포면 한서(漢嶼), 마동(馬洞), 고만(高巒), 사당(祠堂), 조금진(造今津), 송도(松島), 대동(大洞), 산고내(散古乃), 내평(內坪), 신촌(新村), 간평(間坪), 중평(中坪), 장항(獐項), 외평(外坪), 대동(臺洞), 궁언(宮堰), 거어(巨於), 주교(舟橋), 명계(鳴溪)의 19개 동리와 목충면(木忠面)의 사동(砂洞), 신리(新里), 관리(寬里), 후동(後洞), 하창(河倉), 죽림(竹林), 내묘(內墓), 신촌(新村), 마산(馬山), 목리(木里), 대동(垞洞), 벌리(伐里), 어초(於草), 내기(內基)의 14개 동리 지역이다.

원래는 주포면에 속해 있었으나 1971년 4월 1일 주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4월 1일 면으로 승격되었다. 주교리(舟橋里), 은포리(隱浦里), 송학리(松鶴里), 고정리(高亭里), 관창리(寬倉里), 신대리(新垞里)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 주포면(周浦面) : 옛 보령현의 중앙에 있던 면. 현재의 주교면 고정리, 송학리, 은포리, 주교리, 주포면 봉당리, 관산리 지역에 속한다.
- 목충면(木忠面) : 옛 보령현 남쪽에 있던 면. 현재의 주교면 신대리, 대천동, 죽정동 지역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1. 고정리(高亭里)

보령군 주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서리(漢嶼里), 마동(馬洞), 고만리(高巒里), 사당리(祠堂里), 조금진(造今津)을 병합하여 고정리라 하였다. 1989년 4월 1일 주교면이 독립하여 주교면에 속하게 되었다.

- 가그말재 : 사당굴 동북쪽에 있는 고개. 오천면 오포리 수정구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가장굴 : 마동 마을 남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옛날 이곳에 시체를 묻었다고 전한다.

- 가장굴장벌 : 고만 마을 아래뿌리와 마동 사이에 있는 모래 해안.
- 가장굴재빼기 : 고만 마을에서 가장굴 장벌로 넘어가는 재.
- 가패산 : 한여(숫바리) 마을과 옛 한여 마을 위뜸 사이에 있는 산. 상봉의 동쪽 봉우리이다.
- 간사지 : 마동 마을 남쪽에 있는 간척지. 남쪽 부분은 염전으로 이용되었다.
- 간사지 : 조금나루 마을 앞의 간척지이다. ‘모리’라고 하는 일본인이 막았다고 전한다. 1915년(大正4年)에 측도한 지형도에 제방만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감작굴 : 조금나루와 사당굴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조그만 소류지가 있다.
- 고만(高巒) : 고정리 중앙, 바다쪽으로 열려 있는 작은 만 안에 있던 마을이다. 마동과 사당굴 마을 사이에 있었다.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이곳에 수군첨절제사영과 수자리가 있었다. 보령화력 탄재 처리장 설치로 모두 이주하였다.
- 고만산(高巒山) : 주교면 고정리 사당굴. <1911, 朝鮮地誌資料>
- 고정1리 : 1반 진개울, 2반 조금날, 3반 안산.
- 고정2리 : 1반 감작굴, 2반 사당굴, 3반 마동, 4반 한여.
- 구역말 : 옛 한여 마을 응달 사이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 아니고 밭으로 이루어진 곳을 부르는 이름이다.
- 국수봉고랑 : 고만 마을 북쪽 골짜기이다. 국수봉 밑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큰고랑과 작은고랑으로 나누어진다.
- 까치굴 : 한여(숫바리)와 마동 사이의 해안에 위치한 작은 골짜기. 논으로 개간되었다.
- 까치굴산 : 한여(숫바리) 남동쪽 까치굴 옆에 있는 산.
- 꿩밭재 : 조금나루 마을에서 감작굴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 주변에 밭이 있고 이곳에 꿩이 자주 내렸다고 전한다.
- 농배 : 옛 한여 마을 북쪽 해안에 있던 바위. 오천면 오포리와 의 경계 지역이다.
- 담배밭골 : 사당굴 가그말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당산 : 마동과 한여(숫바리) 사이에 있는 산이다. 옛날에는 당제를 지냈으나 90여 년 전 당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묘를 썼다고 한다. 그 묘도 17~18 년 전 이장하였다고 전한다. 안산이라고도 부른다.
- 당산 : 사당굴 마을과 고만 마을 사이 토정 이지함 선생 묘 북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약 25년 전까지 정월 초사흘에 사당굴과 고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를 지냈다고 한다. 고만 마을 쪽에서는 국수봉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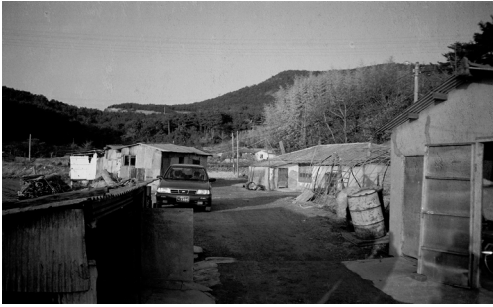
- 동그리재 : 감작굴 마을 서쪽에서 사당굴 마을 가운데로 넘어가는 재.
- 동틀 : 감작굴과 사당굴 사이의 산줄기 끝이다. 이곳과 안산을 둑으로 이어 간척지를 축조하였다. 여러 채의 가옥이 들어서 있다.
- 뒤너머 : 마동 남서쪽, 한여(숫바리) 동쪽 마을. 한여(숫바리)에서 부르는 이름.
- 뒤통굴고개 : 사당굴 마을 북쪽의 고개. 사당굴에서 오천면 오포리 뒤통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뒷골고랑 : 조금나루 마을 동북쪽 골짜기.
- 탄산 : 옛 한여 마을과 현재의 한여 마을(숫바리) 사이에 남쪽으로 내민 산줄기의 끝. 이곳과 솔섬(松島)에 이어 제방을 축조하였다. 선인들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고 전한다.
- 마동(馬洞) : 고정리 서쪽 마을. 한여와 고만 마을 사이에 있었다. 남쪽으로 열려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보령화력 탄재 처리장 설치로 모두 이주하였다.
- 마동(馬洞) : 주교면 고정리 ‘마동’ 마을. 현재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음. <1911, 朝鮮地誌資料>
- 마동염전 : 마동 마을 남쪽에 있던 염전. 모두 탄재처리장이 됨
- 마동저수지 : 마동 마을 앞에 있던 저수지.
- 목 : 옛 한여 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너덜이다. 간조시에는 출입할 수 있었다. 두개의 바위 너덜로 구성되어 있었다.
- 목밭재 : 감작굴 마을 동쪽에서 사당굴 마을 동쪽으로 넘어가는 재.
- 미루나무굴 : 사당굴 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아까시밭골과 통수굴 사이에 있다.
- 배암술 : 한여(숫바리) 마을과 탄산 사이 골짜기에 있던 들.
- 배암술고랑 : 옛 한여 마을 남쪽 골짜기. 상봉의 밭이다.
- 뱃마티 : 마동 양미고랑과 안고랑 사이의 산줄기 끝. 마동저수지 동쪽 끝이다. 옛날 이곳에 배를 대었다고 전한다.
- 사당굴 : 고정리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감작굴과 고만 마을 사이에 있다. 입구에 토정 이지함 선생의 신도비가 있다. 과거에는 이 마을의 가운데를 지나 큰골을 통하여 한여나 오천면 오포리 여수해로 통하였다.
- 사당굴저수지 : 사당굴 동쪽에 있는 저수지.
- 사당굴쪽뿌리 : 사당굴 남서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이다. 토정 이지함 선생의 묘가 있는 큰메골의 동쪽 산줄기 끝이다.
- 사당동(祠堂洞) : 사당굴의 한자 표기.

- 산터고랑 : 사당굴 마을 바로 뒤쪽, 뒤통굴 고개 밑으로 난 골짜기.
- 삼박굴 : 고만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고만 마을과 작은큰메골 사이에 있다.
- 삼태고랑 : 사당굴 마을 큰골의 다른 이름. 삼태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삼형제바위 : 한여 마을 서쪽 해안에 있는 바위. 세 바위가 나란히 있다.
- 상봉 : 한여(숫바리) 마을과 옛 한여 마을 사이에 있는 산. 높이 50.1m이다.
- 서낭당쪽뿌리 : 조금나루와 은포리 진개울 사이에 내민 산줄기. 앞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댕이 : 마동과 한여 마을 사이의 한여재 꼭대기에 있다. 보령화력발전소 건설로 모두 없어지고 신수로 위해지던 소나무만 보령화력발전소 담장 안에 남아 있다.
- 서낭댕이 : 사당굴 마을 북쪽 뒤통굴고개 꼭대기에 있다.
- 숫바리 : 옛 한여 마을(현재 보령화력발전소 자리)과 마동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150여 년 전 이곳에 한산 이 씨와 김해 허 씨가 살았는데, 두 집안의 하인 사이에 치정으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 이것이 주인에게로 번져 두 집안 모두가 망해 빈 골짜기가 되었다고도 전하고, 김해 허 씨네가 왕신(王神)을 모셨는데 탈이 나서 망했다고도 전한다. 보령화력발전소 건설로 한여 마을이 없어지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마을이 생겼다. 옛 한여에서 살던 주민이 이주했기 때문에 이곳도 한여라고 불렀으나 보령화력 탄재 처리장이 되어 모두 이주하였다.
- 아까시밭골 : 사당굴 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아래뜸 : 마동 마을 남동쪽에 있던 마을. 한여(숫바리)에 가깝다. 마동에서는 아래뜸이라고 하고, 한여(숫바리)에서는 뒤너머라고 한다.
- 아래뿌리 : 고만 마을 남서쪽 산줄기의 끝.
- 아랫말 : 옛 한여 마을의 서쪽 부분. 동쪽의 웃말과 비교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가옥의 대부분은 이곳에 있었다.
- 안고랑 : 마동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통칭하는 말이다.
- 안목 : 한여 목 안쪽의 낮은 지형.
- 안산 : 마동과 한여(숫바리) 마을 사이 당산의 다른 이름.
- 안산모태이 : 마동 마을에서 남서쪽 아래뜸으로 내려가는 산모퉁이. 당산의 동쪽이다.
- 앞산 : 옛 한여 마을 북쪽에 있는 산. 높이 131.1m이다.
- 양달 : 옛 한여 마을의 동북쪽 산사면.
- 양미고랑 : 마동저수지 동쪽 골짜기.

- 여새재 : 마동 마을 여수재의 다른 이름.
- 여수고개 : 사당굴 큰골재를 사당굴에서 부르는 이름. 이 고개를 통하여 오천면 오포리 여수해로 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여수재 : 마동 마을에서 오천면 오포리 여수해로 넘어가는 재.
- 옷밭 : 옛 한여 마을의 중심 취락이었다고 전한다. 근래에는 집이 없었다.
- 원논 : 사당굴 앞에 있는 논. 바닷물이 들어오는 늪지 위쪽에 있는 논이다. 간척지가 아닌 원래의 논이라는 뜻이다.
- 위뿌리 : 고만 마을 남동쪽 산줄기의 끝.
- 육굴고랑 : 옛 한여 마을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 응달 : 옛 한여 마을 남동쪽 산사면. 상봉과 가패산의 북쪽 사면이다.
- 이토정묘(李土亭墓) : 토정 이지함 선생의 묘. 당산의 남쪽 큰메산 남쪽 능선에 있다. 이곳은 한산 이 씨의 집단 묘지로 토정 이지함, 명곡 이산보 등의 묘가 있다.
- 작은고랑 : 국수봉고랑의 동쪽 부분.
- 작은큰메골 : 고만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큰메골과 삼박굴 사이에 있다.
- 장벌 : 옛 한여 마을 뒤쪽의 해안. 작은 자갈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 장벌 : 조금나루 서쪽, 도로변에 있는 마을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모래 해안이었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저건너 : 마동 마을의 저수지 남쪽 부분.
- 절건너 : 사당굴 절터와 담배밭골 사이의 산 능선.
- 절굴 : 사당굴 안쪽의 골짜기를 통칭하는 말.
- 절터 : 사당굴 마을 동북쪽 골짜기에 있다.
- 절터 : 큰큰메골의 토정 이지함 선생 묘 남쪽에 있었다. 산업도로의 바로 밑이다.
- 조금나루 : 고령리 서쪽 끝 마을. 은포리 진개울과의 경계 지역이다. 이곳은 간척사업 이전(1915년 이전)에는 바다에 인접했던 곳으로 당시에는 나루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척지의 해발고도와 송학저수지 위쪽의 ‘원논’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송학저수지 지역까지 해수가 들어왔을 것으로 보여져, 이곳에는 조금 때도 배를 탈 수 있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조금날 : 조금나루의 다른 이름.
- 조금진(造今津) : 조금나루의 한자 표기.
- 작은말보고랑 : 사당굴 마을 동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 큰말보고랑과 산터고랑

사이에 있다.

- 큰고랑 : 국수봉고랑의 서쪽 부분.
- 큰골 : 사당굴 마을 서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삼태고랑이라고도 부른다.
- 큰골재 : 사당굴 큰골 위에 있는 재. 이곳으로 한여·여수해로 통하는 자동차 도로가 있었으나, 보령화력발전소 건설로 도로를 돌려내어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
- 큰말보고랑 : 사당굴 마을 동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 작은말보고랑과 절터 사이에 있다.
- 큰메산 : 사당굴과 고만 마을 사이에 있는 봉우리. 당산의 남쪽 토정 이지함 선생 묘의 북쪽이다.
- 큰큰메골 : 사당굴과 고만 마을 사이, 즉 토정 이지함 선생 묘소가 있는 골짜기이다.
- 토정이지함신도비(土亭李之菡神道碑) : 사당굴 마을 서쪽 산업도로 옆에 있다. 이곳은 옛날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광고판앞이라고도 불리던 곳이다.
- 통개고랑 : 옛 한여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오천면 오포리와와 경계 지역이다.
- 통봉 : 마동 마을 남쪽 철탑이 있는 낮은 봉우리. 높이 31.3m이다.
- 통봉 : 마동 안고랑과 양미고랑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50.7m 이다.
- 통수굴 : 사당굴 저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한서리(漢嶼里) : 한여의 한자 표기.
- 한여 : 고정리 서북쪽 끝 바닷가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는 골짜기의 동쪽 옷말에 취락이 있었다고 하나 근래는 골짜기의 서쪽 끝 즉, 해안에 위치하였다. 보령화력발전소의 건설로 남쪽의 숫바리로 모두 이주하였다. 마을 서쪽에 있던 큰 여(바닷가의 바위너덜을 보령 지방에서 ‘여’라고 부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 한여재 : 마동 마을과 옛(발전소 건설 이전) 한여 마을을 통하던 재. 꼭대기에 서낭댕이가 있었다.
- 한여재고랑 : 마동 마을 서쪽 골짜기. 이 골짜기를 통하여 옛 한여 마을로 넘어갔다.
- 형제바위 : 한여 마을과 남서쪽 끝에 있는 바위. 술섬과의 제방축조공사로 한 개는 없어졌다.



고만 마을(1996)



한여(숫바리) 마을(1996)



마동 마을(1996)



한여재 성황당(1996)

2. 관창리(寬倉里)

본래 보령군 목충면(木忠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동(砂洞), 신리(新里), 관리(寬里), 후동(後洞), 하창리(下倉里), 죽림리(竹林里)와 내막리(內幕里), 신촌(新村)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관리(寬里)와 하창(下倉)의 이름을 따서 관창이라 해서 주포면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4월 1일 주교면에 편입되었다.

- 각굴 : 관창초등학교 남쪽, 철로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용무굴의 북쪽이다.
- 갈쿠재 : 절굴에서 신대리 오야굴로 통하는 재.
- 갈쿠재고랑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 갈쿠재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 갯샘 : 창미 남쪽 길 밑에 있는 샘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바닷가에 있던 샘이다. 민물이 나오며, 과거에 바다에서 나와 씻던 곳이다.
- 걸레바위 : 걸루바위의 다른 이름.
- 걸루바위 : 절굴 안 절터의 서남쪽에 있는 바위.

- 검바위고랑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재봉 밑에 있다. 신당안과 실너덜 사이에 있다.
- 고라실 : 옛 창미초등학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고라실재를 통하여 군사피로 통한다.
- 고라실재 : 고라실 마을에서 군사피로 통하는 재.
- 고인돌 : 관창초등학교 서쪽, 용머리 앞에 있는 바위. 큰 바위 3개가 있었고 주변에 작은 바위도 있었다. 몇 번의 도로공사로 일부가 훼손되었다.
- 골말 : 관창초등학교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
- 공동묘지 : 안태재빼기의 북서쪽에 있다. 관창리에 위치하지만 신대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묘지이다.
- 공동묘지 : 작은용무굴과 큰용무굴 사이의 낮은 산줄기 끝에 있다. 뒷굴 사람들이 이용하던 공동묘지이다.
- 공동묘지 : 큰용무굴 북쪽 산 정상 부분에 있는 공동묘지이다. 관창리 상관(上寬) 사람들의 공동묘지이다.
- 공판골 : 큰샘골의 서쪽 부분이다. 옛날 공을 치던 곳이라고 전한다.
- 관동(寬洞,한술) : 관창리 한술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관리(寬里) : 관창리 한술 마을의 한자 표기.
- 관창1리 : 1반 삭골·시영굴, 2반 새터, 3반 양지뜸, 4반 골말, 5반 대숲말.
- 관창2리 : 1반 뒷골, 2반 뒷골, 3반 대섬말, 4반 대섬말.
- 관창3리 : 1반 부사동, 2반 해창, 3방 창미, 4반 창미, 5반 고라실.
- 구수고랑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 배나무고랑과 큰고랑 사이에 있다.
- 국수당말래이 : 관창리 상관(上寬) 서쪽의 산봉우리. 주교리와의 경계가 된다. 높이 139.8m이다. 이곳에는 옛날 제단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돌로 쌓은 단이 있다.
- 국수봉 : 국수당말래이의 다른 이름.
- 군사피 : 해창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 기지평(機池坪,틀못들) : 주교면 관창리 뒷굴 마을 앞 들. 관창공단 자리. <1911, 朝鮮地誌資料>
- 까치봉 : 운수산 서쪽에 있는 봉우리. 통수굴의 북쪽 봉우리이며, 주교면과 경계이다. 높이 224.0 m이다.
- 농바위고랑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 큰고랑의 입구에서 동쪽으로 뺀 골짜기이다. 모재봉으로 향해있다. 실너덜과 큰고랑 사이에 있다.

- 당산 : 해창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다. 높이 98.7m이다. 이곳에는 돌로 쌓은 당집이 있고 신수로 소나무가 있다. 근래까지 당제를 지냈다.
- 당재 : 당산의 다른 이름.
- 대설말 : 관창리 남쪽 마을. 옛 창미초등학교 북쪽이다.
- 대설말재빼기 : 창미국민학교 뒤 대설말에서 군사피로 넘어가는 재.
- 대숲말 : 관창리 동쪽에 있는 마을. 서낭당이재 서쪽에 있다.
- 뒷굴 : 관창리의 남동쪽 마을이다. 모두 관창공단 부지로 조성되었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성된다.
- 뒷굴저수지 : 뒷굴 아래뜸 동쪽에 있는 저수지.
- 들건너 : 뒷굴의 남쪽 끝 마을. 틀무시의 남쪽이다. 시계들의 남쪽 건너이다.
- 띠아굴 : 대설말과 뒷굴 사이에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 마우전 : 관창초등학교 앞에 있는 들. 21호 국도와 철로로 둘러싸인 들이다.
- 마장 : 대설말 동쪽에 내민 낮은 산. 높이 22.1m이다.
- 마쟁이 : 신대리 창머리 마을 북쪽에 있는 산. 현재는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으나 과거에는 풀밭으로 되어 있어 소나 말을 매던 곳이라고 전한다.
- 말미산 : 관창초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산. 높이 75.8m이다. 인공식재한 소나무가 울창하였으나 관창공단이 들어서 모두 베었다.
- 매봉재 : 창말 마을 북쪽 산줄기. 당산에서 서쪽으로 내민 줄기이다.
- 모재봉 : 운수산의 남쪽에 있는 봉우리. 신대리와의 경계이다. 높이 317.0m이다.
- 물탕 : 절굴 저수지 100여m 상부에 있는 웅덩이. 맑은 물이 고여 예부터 목욕을 하곤 하였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나왔다고 전한다.
- 미수굴 : 해창 마을 북쪽, 해창 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칭하기도 한다.
- 미수굴재 : 작은용무굴에서 미수굴로 넘어가는 재.
- 배나무고랑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 옷적굴고랑과 구수고랑 사이에 있다.
- 배투재 : 시계들과 관창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국도 21호선이 지난다.
- 부안 : 진굴 앞 철로 남쪽에 있는 들.
- 분사피 : 군사피의 다른 이름.
- 비각계 : 관창초등학교 서쪽, 철로 옆 비각이 있던 곳이다. 충청수영의 마지막 수군 절도사였던 이봉구의 비각이었다고 한다. 관창공단의 건설로 비각은 없어지고 비는 오천면 소성리로 옮겼다.

- 사골 : 관창리의 북쪽 끝 마을.
- 사골 : 사골 마을이 있는 골짜기.
- 사동(砂洞, 삭골) : 관창리 사골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산수굴 : 뒷굴 아래뜸의 북쪽에 있던 골짜기. 안뒷굴의 서쪽에 있다.
- 산수굴재 : 산수굴 서쪽에 있던 고개.
- 상관(上寬) : 관창리의 북쪽 부분. 1960년대 관창리 2구(上寬, 下寬) 중 1구.
- 새암굴 : 관창리 상관(上寬)의 서쪽 골짜기 마을. 국수당말랭이의 남쪽에 있다.
- 새터 : 관창리 상관(上寬)의 중심 마을. 주변이 모두 밭으로 된 낮은 언덕에 있다.
- 서낭댕이 : 관창리 대숲말에서 신대리 오야골로 넘어가는 서낭댕이재에 있다.
- 서낭댕이 : 역재고랑의 중턱 역재로 오르는 길 옆에 있다.
- 서낭댕이재 : 관창리 대숲말에서 신대리 오야골로 넘어가는 재. 신대리에서 관창리를 거쳐 역재로 통하는 큰 길이었다.
- 솔칭 : 솔챙이의 다른 이름.
- 솔챙이 : 관창리 새터의 남쪽 마을회관이 있는 곳. 옛날에 소나무가 있었다. 서낭댕이재와 역재로 통하는 큰 길이 지났다.
- 수명굴 : 군사피 마을 서쪽에 있는 일제시대 간척지의 수문 있는 곳.
- 숙굴 : 대숲말의 북쪽 구석을 말함.
- 숙뜸 : 해창 마을의 동북쪽 골짜기. 당산의 밑이다.
- 시계들 : 뒷굴 동쪽에 있는 들. 국도 21호의 서쪽이다. 이곳은 물이 귀하여 풍년 흉년을 점칠 수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시계들저수지 : 시계들에 있는 저수지. 일제시대에 축조하였다. 최근 매립되었다.
- 시영굴 : 새터 동쪽 절굴 밑에 있는 마을.
- 신당안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 모재봉의 남서쪽에 있다. 갈쿠재고랑과 검바위고랑 사이에 있다.
- 신리(新里) : 새터의 한자 표기.
- 실너달 : 절굴 안에 있는 작은 산능선. 검바위고랑과 농바위굴 사이에 있다. 모재봉에서 내려온 산줄기이다.
- 아래뜸 : 뒷굴의 남동쪽 부분.
- 아래뜸 : 해창 마을의 남쪽 부분.
- 아랫말 : 관창리 상관(上寬)의 남쪽 마을. 새터 남쪽을 통칭한다.
- 안뒷굴 : 뒷굴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수굴과 작은용무굴 사이에 있다.

뒷굴저수지의 북쪽이다.

- 안산 : 관창리 상관(上寬) 마을의 동쪽에 있는 산. 서낭댕이재와 갈쿠재 사이를 말하는 이름이다.
- 안산 : 군사피와 창미 마을 사이에 있는 산.
- 안태고개 : 안태재빼기의 다른 이름.
- 안태재빼기 : 관창리에서 신대리 안태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시멘트 포장도로가 통한다.
- 양지뜸 : 관창리 상관(上寬) 새터 서쪽 산 밑 마을을 통칭한다. 남동향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여수구멍 : 창미 서남쪽 끝, 재순씨바위 밑에 있는 구멍.
- 역재 : 관창리 북쪽에 있는 재이다. 주포면 관산리 역말로 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과거에는 주포면 관산리 역말에 있던 청연역(靑淵驛)과 통하는 큰 고개였다.
- 역재고랑 : 역재 남쪽에 있는 좁고 깊은 골짜기이다. 역재로 오르는 길이 통한다.
- 용머리 : 관창리 아랫말, 관창초등학교 서쪽으로 내민 낮은 산의 끝. 옛날 이곳 마을에 장사가 태어나 출생 후 곧바로 선반에 올라가는 등 초능력을 발휘하였는데, 장사는 역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삼죽이 멸망한다고 생각하여 죽여 버렸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용이 나와서 울다 죽었기 때문에 용머리라고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 용무굴 : 뒷굴의 북쪽 지역, 큰용무굴과 작은용무굴을 통칭하는 말이다.
- 용미굴 : 용무굴의 다른 이름.
- 용보굴 : 용무굴의 다른 이름.
- 우창말 : 해창 마을의 산줄기 부분.
- 운수산 : 관창리 동북쪽 끝에 있는 산봉우리. 주포면, 청라면과의 경계가 된다. 최고봉은 356.9 m이다.
- 옷적굴고랑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까치등의 바로 남쪽, 통수굴과 배나무고랑 사이에 있다.
- 원답굴 : 관창초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들. 대숲말의 서남쪽이다.
- 위뜸 : 뒷굴 마을의 서쪽 부분. 골짜기의 안이다.
- 위뜸 : 해창 마을의 북쪽 부분.
- 일본말림 : 보령정심학교가 있는 산이다. 일제시대 일본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작은용무굴 : 뒷굴 북쪽의 골짜기. 안뒷굴과 큰용무굴 사이에 있다.

- 장고개 : 장승백이의 다른 이름.
- 장벌 : 창미초등학교 앞에 있던 모래 백사장이다. 간척사업 이후 경작지가 되었다.
- 장승백이 : 뒷굴 마을 동쪽, 신대리 점촌과의 경계가 되는 고개. 과거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전한다. 국토 21호선이 통한다.
- 재드리 : 관창리 새터와 대숲말 사이의 낮은 언덕에 있는 마을.
- 재순씨바위 : 창미 서남쪽 끝, 즉 안산의 서남쪽 끝에 있는 바위.
- 절굴 : 관창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시영굴의 북쪽에 있으며 입구에 저수지가 있고, 안에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 절굴저수지 : 관창리 북쪽 절굴 입구에 있는 저수지.
- 절터 : 절굴 안 신당안의 입구에 있다.
- 죽림리(竹林里) : 대숲말의 한자 표기.
- 죽촌(竹村) : 대숲말의 한자 표기.
- 진굴 : 관창리 서쪽 끝, 주교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국토 21호의 북쪽이다.
- 진굴산 : 관창리 상관(上寬)의 서쪽, 진굴 북쪽에 있는 산.
- 쪽다리 : 뒷굴 마을 남쪽을 흐르는 하천에 있는 다리이다. 함박굴에서 대숲말로 통한다.
- 쪽다리보 : 뒷굴 남쪽 쪽다리 밑에 있는 보. 함박굴과 대숲말 사이에 있다.
- 창미 : 창미초등학교 서쪽에서 군사피 마을에 이르는 해안 마을. 간척사업 이전에는 바닷가 자갈밭이었으나, 대천간척지 축조 이후 가옥이 뻗뻗이 들어서 있다.
- 큰고랑 : 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고랑 : 절굴 안에 있는 골짜기. 운수산 쪽으로 뻗은 가장 큰 골짜기이다. 구수고랑과 농바위고랑 사이이다.
- 큰샘골 : 국수당말랭이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안에 공판골이 있다. 새암굴 동북쪽 골짜기이다.
- 큰용무굴 : 관창리 뒷굴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말미산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통수굴 : 까치등에서부터 사골과 절굴 사이로 내려온 산줄기.
- 틀무시 : 뒷굴 아래뜸 마을과 들건너 마을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틀못(機池)에서 나온 지명으로 보인다.
- 팔봉다리 : 관창리 창미와 주교리 팔봉 사이에 있는 다리.
- 하관(下寬) : 관창리의 남쪽 부분. 21호 국도의 남쪽. 1960년대 관창 2구(上寬, 下寬) 중 1구.

- 하창(下倉) : 해창 마을의 한자 표기.
- 하창리(下倉里) : 해창 마을의 한자 표기.
- 한수동(寒水洞) : 관창리 북부(上寬)를 통칭하는 이름. 근래에 지어진 이름이다.
- 함박굴 : 신대리 창머리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과거에는 모두 마쟁이로 불리던 곳이다. 관창리에 위치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신대리의 신촌(창머리)에 속한다.
- 함박굴 : 해창 아래뜰에 있는 작은 골짜기.
- 해창 : 관창리의 남서쪽 마을. 옛날 뒷굴에서 두레가 내려면 용대기를 가져와 이곳 해창의 용대기에 절을 하고 가야 했다고 전하는 바로 미루어 이곳이 중심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해창(海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창이 있던 곳은 대동샘 서북쪽 밭이다. 이 밭둑에 현감 비석이 있었는데, 최근 마을 회관 앞으로 옮겼다.
- 해창넷갈 : 주포면에서 발원하여 해창마을 서쪽을 흐르는 내.
- 해창재빠기 : 해창 아래뜰에서 군사피로 연결되는 낮은 재. 황토백이의 동쪽이다.
- 해창저수지 : 해창 마을 북쪽에 있는 저수지.
- 형제바위 : 관창초등학교 옆 고인돌을 마을에서 부르던 이름.
- 황토백이 : 해창 마을과 군사피 마을 사이에 있는 낮은 산능선.
- 후동(後洞) : 뒷굴의 한자 표기. 관창공단으로 없어진 마을.



수명굴(1996)



해창 산제당(1996)

3. 송학리(松鶴里)

본래 보령군 주포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도리(松島里) 대동(大洞) 산고내(散古乃)를 병합하여 송학리라 하였다.

1989년 4월 1일 주교면의 분리로 주교면에 편입되었다.

- 가그말재 : 척굴에서 오천면 오포리 가그말로 넘어가는 재.
- 가그말재고랑 : 척굴에서 오천면 오포리 가그말로 통하는 골짜기를 통칭하는 말.
- 가그말재고랑저수지 : 척굴 안 가그말재고랑에 있는 저수지.
- 가는목 : 작은안산에서 안산으로 통하는 아주 가느다란 목. 남서쪽은 백사장이고 동북쪽은 간척지이다. 이곳은 송학리와 고정리의 경계 지역으로 해수면 윗 부분은 송학리이고 해수면 아랫부분은 모두 고정리에 속한다. 따라서 집집마다 리(里)가 다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방만 축조된 간척지를 고정리에 편입했고 육지는 송학리에 편입했기 때문이다.
- 간사지 : 척굴 남서쪽에 있는 간척지로 大正 4년(1915년)에 축조한 지형도에 제방 공사를 완공하고, 논으로 개간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1915년 이전에 제방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개장굴고랑 : 척굴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옥고개 고랑과 봉오굴 사이에 있다.
- 고정리보 : 진개울 마을 앞에 있던 보.
- 남산박굴 : 척굴 안에 북쪽으로 난 골짜기. 산착굴과 배통굴 사이에 있다.
- 너른번데기 : 척굴 안쪽 탑선이고랑에 있는 넓적한 산능선.
- 너른번데기꼭대기 : 너른번데기 동쪽의 산능선.
- 녁배 : 안산고래와 재마당너머 마을 사이 산줄기 끝에 있는 바위. 주변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 농굴 : 밧산고래 남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농굴고개 : 밧산고래 위뜸에서 농굴로 넘어가는 고개.
- 농어바위 : 진개울 서낭댕이 앞에 있던 바위이다. 옛날 이곳에서 농어를 낚았다고 전한다.
- 능굴 : 안산고래와 육월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당산의 서쪽이다.
- 담박굴고랑 : 척굴 안에 있는 골짜기. 탑선이고랑과 석수쟁이굴 사이에 있다.
- 당산 : 밧산고래 서쪽에 있는 산. 20~30년 전까지 정월 열나흘 밤에 제를 지냈다고 한다. 밧산고래의 당산이다.
- 당산 : 안산고래와 능굴 사이에 있는 산. 높이 36.0m이다. 약 15년 전까지 안산고래 마을에서 정월 열나흘 당제를 지냈다. 신수로 위하던 소나무가 남아 있다.
- 당재 : 당산 북쪽에 있는 낮은 재. 안산고래와 밧산고래가 통하는 재이다.

- 당재 : 안산고래에서 능굴로 넘어가는 재. 당산의 북쪽이다.
- 당재너머 : 안산고래의 동쪽 마을, 밧산고래 당산의 서쪽이다. 밧산고래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대동(大洞,척굴) : 송학리 척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대섬 : 안산고래 서남쪽에 있는 작은 섬. 죽도의 우리말 이름. 높이 19.4m이다.
- 도루말 : 척굴 옥고개 마을과 중뜸 사이에 있는 마을.
- 두명굴 : 척굴과 오천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과 시루바위날 사이에 있는 골짜기. 안에 골짜기들이 있다.
- 등잔거리 : 척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상 등잔거리라고 한다.
- 망종보 : 척굴 양지뜸 앞, 다리 바로 밑에 있던 보.
- 매주굴 : 척굴 안, 두명굴에 있는 골짜기. 산착굴과 세모진굴 사이에 있다.
- 모새목굴 : 척굴 양지뜸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밧산고래 : 산고래의 동쪽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배암굴 : 척굴 안, 위뜸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굴과 섯밭 사이에 있다.
- 봉대산 : 봉산의 다른 이름.
- 봉산 : 송학리와 은포리의 경계에 있는 산. 옥미봉에서 받아 천북 홍양꽃으로 전하던 조침산 봉수대가 있던 산이다. 높이 228.9m이다.
- 봉오굴 : 봉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중뜸의 동쪽이다.
- 봉오굴날땡이 : 척굴 봉오굴과 언머리굴 사이에 내민 산줄기.
- 부엡이들 : 척굴 북쪽 가그말재고랑 서쪽에 있는 산사면. 골짜기가 없이 밋밋하다.
- 산고내(散古乃) : 산고래의 한자 표기.
- 산고래 : 송학리의 남쪽 마을. 안산고래와 밧산고래로 나누어진다. 빼 치료제인 산골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
- 산고래재 : 안산고래에서 새달이로 넘어가는 재.
- 산고리(散古里) : 송학리 산고래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산수굴 : 밧산고래 위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산착굴 : 척굴 안에 있는 골짜기. 두명굴 입구에서 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이다. 남산박굴과 매주굴 사이에 있다.
- 살막이마 : 송학리 남동쪽 끝에 있는 마을. 과거에는 살막이마라고만 불렀으나 ‘살’자가 좋지 않다고 하여 요즈음은 현장이라고 부른다.
- 새달이 : 송학저수지 남쪽 부분. 밭이 많다.

- 새암고랑 : 안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가 하역되는 곳이다.
- 새암고랑 : 척굴 안에 있는 골짜기. 가그말재고랑 서쪽에 있다.
- 서낭당쪽뿌리 : 송학리 진개울과 고정리 조금나루 사이에 있는 산줄기. 끝에 성황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댕이 : 안산고래에서 육월동으로 통하는 고개 마루에 있었다.
- 서낭댕이 : 진개울 마을 앞에 있었다.
- 석수쟁이골 : 척굴 안에 동쪽으로 난 골짜기. 담박굴고랑과 용무굴재고랑 사이에 있다.
- 섯밭 : 소독굴과 배암굴 사이에 있는 산능선.
- 세모진굴 : 척굴 안, 두명굴에 있는 골짜기. 매주굴의 서쪽에 있다.
- 소독굴 : 척굴 양지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송학1리 : 1반 아래뜸, 2반 양지뜸, 3반 위뜸.
- 송학2리 : 1반 밧산고래, 2반 안산고래, 3반 안산.
- 송학3리 : 1반 현장, 2반 육골.
- 송학4리 : 1반 상송, 2반 하송.
- 송학저수지 : 송학리 양지뜸 마을 앞 저수지. 1935년에 준공했다고 전한다.
- 수박굴 : 척굴의 북쪽 골짜기를 은포리에서 일컫는 말.
- 시루바위날 : 척굴 안에 있는 산줄기. 두명굴과 용대고랑 사이에 내민 산줄기이다.
- 시루바위날꼭대기 : 가그말재 서쪽에 있는 봉우리. 오천면과의 경계를 이룬다.
- 시루배날 : 시루바위날의 다른 이름.
- 아래뜸 : 밧산고래의 서쪽 마을.
- 아래뜸 : 송학리 척굴의 송학초등학교 주변 마을. 송학 1리를 아래뜸, 양지뜸, 위뜸으로 구분할 때의 한 곳이다. 즉 옥고개, 도루말, 중뜸을 합한 이름이다.
- 아래뜸평밭 : 중뜸 남쪽의 들. 밭이었다가 논으로 개량되었다.
- 안산 : 송학리의 서쪽 솔섬 옆에 있는 산. 가는목으로 연결된 육지이다.
- 안산 : 안산 동쪽에 있는 마을. 마을 앞 간척지는 고정리에 속한다. 마을 안에도 간척지에 있는 집은 고정리에 속한다.
- 안진여살 : 대섬과 안산 사이에 있던 고기 잡던 살.
- 앞논보 : 척굴 양지뜸 정자나무 앞에 있던 보.
- 앞들 : 척굴 양지뜸 앞 들.
- 양지뜸 : 척굴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언머리굴 : 척굴 안에 있는 골짜기. 봉산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봉오굴 날땀이와 탑선이고랑 사이에 있다.
- 열두수문 : 대천간척지 제방에 있는 제일 큰 수문. 문이 12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옥고개 : 옥고개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송학초등학교가 있다.
- 옥고개 : 은포리와 경계가 되는 고개. 산업도로가 지난다.
- 옥고개골 : 옥고개의 서쪽 골짜기.
- 웃고개 : 옥고개의 다른 이름.
- 와가리끝 : 안산고래 당산 남쪽에 내민 바위. 대섬을 향해 있다.
- 용대고랑 : 척굴 안에 있는 골짜기. 부엌이들 남쪽 시루바위날의 북쪽에 있다.
- 용무굴재골 : 척굴 안에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은포리 용무굴로 통한다.
- 원논 : 송학저수지 위에 있는 논. 간척지가 아닌 원래의 논이라는 뜻이다.
- 위뜸 : 빛산고래 동쪽 마을. 마을의 가운데에는 정자나무가 있다.
- 위뜸 : 척굴의 동북쪽 마을.
- 위뜸평밭 : 중뜸 북쪽에 있는 들. 밭이었으나 논으로 개간되었다.
- 육굴 : 살막이마(현장) 마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포리와의 경계이다.
- 유월동 : 능굴과 작은안산 사이의 마을.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초분을 했다고 전한다. 근래에 집이 들어서고 특히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장이 들어서 있다.
- 음지뜸 : 척굴의 동쪽에 있는 도루말과 중뜸을 일컫는 말. 양지뜸과 비교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작은안산 : 육월동과 가는목 사이에 있는 낮은 산. 높이 19.9m이다.
- 장벌 : 살막이마 남쪽 바닷가 마을. 간척지 제방의 밖이다.
- 장벌 : 안산고래의 남서쪽 백사장.
- 재마당너머 : 안산고래의 동쪽 마을. 빛산고래 당산의 서쪽이다. 안산고래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정자나무 : 척굴 양지뜸 입구에 있었는데 근래 넘어져 없어졌다.
- 죽도 : 주교면 송학리 안산고래 마을 서남쪽에 있는 섬인데, 간조 때는 갯벌에 노출되는 섬이다. 마을에서는 보통 ‘대섬’이라고 부른다. 주변에는 대규모의 바지락 양식장이 있다. 죽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바다 밑에 고려청자가 묻혀 있는 곳이 발견되어 1987년 9월 18일 사적 321호(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로 지정되었다.
- 중뜸 : 척굴 도루말과 위뜸 사이의 마을.
- 지함재 : 육굴에서 빛산고래 위뜸으로 통하는 재. 토정 이지함 선생이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진갈 : 진개울의 다른 이름.
- 진개울 : 양지뜸 서쪽에 있는 마을. 고정리와 경계한다.
- 진골 : 밧산고래 위뜸 밑에 있는 골짜기.
- 척굴 : 옥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가그말재골) 안에 있는 마을을 통칭하는 말. 양지뜸, 옥고개, 도루말, 중뜸, 위뜸을 통칭한다.
- 척동(尺洞) : 척굴의 한자 표기.
- 칠현리(漆峴里) : 옥고개의 한자 표기. 과거에는 옥고개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 큰골 : 척굴 위뜸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배통굴과 배암굴 사이에 있다.
- 탑선이고랑 : 척굴 안에 있는 골짜기. 동쪽으로 향한 넓은 골짜기이다.
- 평면들 : 남산박굴 입구 북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홍가번덕지의 서남쪽이다.
- 하나시살 : 대섬 서쪽에 있던 고기잡던 살.
- 현장 : 살막이마의 다른 이름. 요즈음은 현장으로 많이 부른다. 대천간척지 공사 때 토취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홍가번덕지 : 척굴 안, 두멍굴 입구에 있는 평평한 지형.



산고래 해안(1996)



생생 곶마을(2007)

1) 송도(松島)

송학리 서남쪽에 있는 섬으로 솔섬으로 불렸다. 두 섬이 염전으로 연결되어 한 섬이 되었고, 근래 육지와 제방으로 연결되었다.

해안 포구를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근래 송도의 안쪽 바다가 보령화력발전소의 탄재 처리장이 되면서, 해안에 살던 주민은 대부분 섬 밖으로 이주하고 일부 주민이 높은 곳으로 옮겨 살고 있다.

- 거리땅 : 송도 위섬 큰동네 서북쪽 끝. 이곳의 오래된 팽나무에서 거리제를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정월 초이틀 저녁에 산제를 지내고 다음 날 아침 이곳에 거리제를 지낸 후 서낭제를 지냈다. 1960년대부터 지내지 않았다.
- 곤여장벌 : 송도 아랫섬 남쪽 해안. 샘장벌과 녁벌뿌리 사이에 있다.
- 굴말 : 송도 아랫섬 염전저수지 서쪽 골짜기 마을.
- 녁벌뿌리 : 송도 아랫섬 남쪽 끝의 돌출부.
- 느르재 : 송도 아랫섬의 동남쪽 해안.
- 느르재쪽뿌리 : 송도 아랫섬의 동남쪽 끝.
- 당산 : 송도 아랫섬 중심 마을 동쪽에 있는 산. 1960년대까지 정월 초이틀에 제를 지냈다.
- 당산 : 송도 윗섬 큰동네 서쪽에 있는 산. 높이 37.8m이다.
1960년대까지 정월 초이틀날 제를 지냈다.
- 당산모태이 : 송도 아랫섬 당산 남쪽에 서쪽으로 난 골짜기.
- 대동(大洞) : 송학리에서 가장 큰 마을. 즉, 척굴의 옛 표기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도 대동으로 표기하였다.
- 대동샘 : 송도 아랫섬 중심 마을 남서쪽에 있는 샘. 산제 지낼 때 사용하였다.
- 대산소고랑 : 송도 아랫섬 남쪽, 봉우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유씨네 대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대섬 : 송학리 남쪽에 있는 섬. 간조시에는 육지와 이어진다.
- 동메산 : 송도 윗섬 큰동네 서쪽, 당산 서북쪽 산.
- 동산 : 송도 윗섬 큰동네의 동북쪽에 있는 낮은 산. 높이 12.7m이다.
- 뒷면 : 송도 윗섬 동메산 북쪽 해안.
- 판곤여 : 송도 아랫섬 곤여장벌 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마여 : 송도 아랫섬 남서쪽 바다에 있는 바위. 높이 10.5m이다. 상쟁이바위 밖에 있다.
- 명택이 : 송도 윗섬 큰동네 서쪽 언덕 너머 즉, 염전 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 명택이재 : 송도 윗섬 큰동네 서쪽에서 명택이로 넘어가는 재.
- 목끝 : 송도 윗섬의 동쪽 끝.
- 문턱 : 송도 아랫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진뿌리와 큰쩌쩌물 사이에 있다.
- 물곤여 : 송도 아랫섬 느르재쪽뿌리 남쪽에 있는 바위 너덜.
- 봉우재 : 송도 아랫섬 마을의 남쪽에 있는 산. 과거 봉화를 올렸다고 전한다. 삼각점이 있다. 높이 51.9m 이다.

- 분초소 : 송도 아랫섬 서쪽 끝에 있는 경비 초소.
- 사타굴 : 송도 아랫섬 염전 서남쪽 골짜기. 샘장벌 마을의 서쪽에 있다.
- 산숙개 : 송도 윗섬 큰동네와 염전 저수지 사이의 언덕. 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상송도 : 송도 윗섬의 중심 마을.
- 상여집고랑 : 송도 윗섬 당산과 동메산 사이의 골짜기.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 상괭이바위 : 송도 아랫섬 남서쪽 주렁이바위 앞 바다에 있는 바위.
- 샘장벌 : 송도 아랫섬 남쪽에 있는 마을. 송학초등학교 송도 분교가 있었다.
- 샘장벌재 : 송도 아랫섬 굴말에서 샘장벌로 넘어가는 재.
- 서낭당이 : 송도 아랫섬 당산 동북쪽 끝에 있었다.
- 서낭당이 : 송도 윗섬 동쪽 마을 끝에 있었다. 1960년대까지 정월 초사흘 거리제 후 재를 지냈다.
- 섬창 : 송도 아랫섬 서쪽 끝에서 북쪽으로 내민 방파제. 고정리와 연결하는 제방의 서쪽에 있다.
- 술섬 : 송도의 순수 우리말 이름.
- 술등 : 송도 윗섬 큰동네 동북쪽으로 내민 돌출부. 사구를 술등이라고 부른다.
- 아래끝 : 송도 아랫섬 중심 마을의 서북쪽 끝 선착장 부근. 과거 유왕제를 지내던 곳이다.
- 앞산 : 송도 아랫섬 서남쪽에 있는 산. 봉우재의 서쪽이다.
- 약수터 : 송도 아랫섬 서쪽 찌찌물에 있는 샘. 분초소의 서쪽에 있다. 물이 좋아 여름에 땀띠를 씻으면 나왔다고 전한다.
- 염전 : 송도 윗섬과 아랫섬 사이의 간척지에 만든 염전. 보령화력 탄재처리장으로 수용되었다.
- 염전집 : 송도 아랫섬 당산 동쪽 염전 옆에 있던 집. 염전을 관리하는 주택이었다.
- 용구멍 : 송도 아랫섬 남서쪽 끝에 있는 구멍.
- 옷끝 : 송도 아랫섬 중심 마을 동쪽 끝 부분.
- 윗섬 : 송도의 동쪽 부분. 아랫섬과 나뉘어 있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연결되었다.
- 작은찌찌물 : 송도 아랫섬 서북쪽에 서쪽으로 내민 돌출부.
- 저너머장벌 : 진장벌의 다른 이름.
- 저수지 : 송도 염전의 저수지. 터진목으로 들어온 해수를 저장하였다.
- 정자나무 : 송도 윗섬 명택이재 밑에 있었다. 느티나무이다.
- 좃뱅기 : 송도 아랫섬 중심 마을에서 당산 모퉁이로 넘어가는 재. 이 재를 통하여

하송도 어린이들이 송도분교에 통학하였다.

- 주랭이바위 : 송도 아랫섬 남서쪽 용구멍 북쪽 산에 있는 바위. 조랭이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진밭살 : 송도 윗섬의 입구 마을. 큰동네의 동쪽 끝 부분이다.
- 진뿌리 : 송도 아랫섬 남서쪽 돌출부. 용구멍의 동쪽이다.
- 진장벌 : 송도 아랫섬 남쪽 녀벌뿌리와 진뿌리 사이에 있는 해안.
- 찌찌물 : 송도 아랫섬의 서쪽 부분 즉, 큰찌찌물과 작은찌찌물을 통칭하는 말.
- 큰동네 : 송도 윗섬의 중심 마을. 염전으로 사용하던 간척지 주변에 마을이 원형으로 들어서 있다.
- 큰찌찌물 : 송도 아랫섬 서쪽 끝의 돌출부. 분초소의 서쪽이다.
- 큰찌찌물장벌 : 송도 아랫섬 큰찌찌물 북쪽에 있는 모래 해안.
- 터진목 : 송도 윗섬과 아랫섬 사이의 남쪽 부분. 좁은 목으로, 이곳을 통하여 염전 저수지에 물을 낸다.
- 통개 : 송도 아랫섬 동북쪽 끝 돌출부.
- 하송도 : 송도 아랫섬의 중심 마을.
- 향개 : 송도와 고정리 사이에 있는 바다. 포구의 앞이다.



송도 염전(1992)



송도 윗섬(1996)

4. 신대리(新垓里)

보령군 목충면(木忠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마산리(馬山里), 목리(木里), 대동(垓洞), 벌리(伐里), 어초리(於草里)와 내기리(內基里), 신촌(新村)을 병합하여 신촌(新村)과 대동(垓洞)의 이름을 따서 新垓里라 하여 주포면에 편입하였다가 1989년 4월 1일 주교면에 편입되었다.

- 가운데골 : 사기장굴저수지에서 동쪽으로 뻗은 넓은 골짜기.
- 갈쿠재 : 오야굴에서 갈쿠재고랑을 통하여 주포면 관산리로 넘어가는 재.
- 갈쿠재고랑 : 오야굴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갈쿠재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강당 : 벌말과 마산 마을 사이에 있는 집을 말한다. 켈월의 서북쪽이다. 옛날 서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개근너 : 군들재의 서남쪽 마을이다. 창머리 마을에서 보아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천간척지 축조 이전에는 창머리 앞까지 바다였다.
- 개근너들 : 개근너 마을 북쪽에 있는 들. 새터 서북쪽 빼보에서 물을 댈다.
- 개장굴 : 개장굴 앞에 있는 들.
- 개장굴 : 어추리와 벌말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가운데에 있는 작은 골짜기.
- 갱미들 : 점촌 마을 남쪽에 있는 들. 하천의 서북쪽이다.
- 건보 : 장승백이 마을과 용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보. 진보와 말무덤보 사이에 있다.
- 검은배들 : 과재비 마을 서쪽에 있는 들. 검은배보에서 물을 댈다.
- 고라실 : 어추리 마을 서쪽에 있는 들.
- 고인돌 : 신대리 벌말에 있다. 크고작은 10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 구래 : 마산 마을 서북쪽에 있는 들.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구역밭 : 첫바탕이 마을 안에 있는 지명. 한 가구를 일컫는 말이다.
- 국수봉 : 어추리 마을 동쪽에 있는 봉우리. 봉황산에서 떨어져 나온 뾰족한 봉우리이다. 함박굴과 새암굴 사이에 있다.
- 군들재 : 대천동과 신대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국도 21호선이 지난다. 과거에 성황당이 있었다.
- 군들재 : 신대리 남쪽, 대천동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국도 21호 양편으로 가옥이 있었으나 현재는 도로의 서쪽으로 몇 가구만 남아 있다.
- 굴통내 : 정거장번덕지 서남쪽의 들.
- 꾸지밭번덕지 : 켈월 마을 동북쪽에 있는 밭.
- 나말 : 신대리 북쪽 끝에 있는 마을. 오야굴의 동북쪽 첫바탕이의 북쪽에 위치한다.
- 나물 : 나말의 다른 이름.
- 난민촌 : 신대리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다. 대천여고 북쪽 언덕 너머에 위치한다.
6·25 사변 직후 북한에서 피난온 난민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이들은 6·25 사변 중 황해도 연백에서 경기도 여주로 이주하여 3-4년간 거주하다가, 대천간척지 공사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처음 50여 가구가 이주해 와 간척지 900평씩 분양 받아 생활하다 1960~1970년대에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현재는 3~4가구만 남아 있다. 현재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은 근래에 이주하였다.

- 내기(內基) : 안태의 한자 표기.
- 내기리(內基里) : 안태의 한자 표기.
- 너른골 : 사기장굴저수지 위쪽에서 동북으로 뻗은 골짜기. 질굴재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 농바위 : 사기장굴 저수지 동쪽 산 정상에 있는 바위.
- 농바위산 : 사기장굴 저수지 동쪽 산. 높이 385.4m이다. 청라면과의 경계이다.
- 느르재 : 사기장굴 위쪽의 산줄기. 너른골과 가운데골 사이에 있다.
- 당굴 : 나말의 서쪽 부분. 현재는 집 한 채를 일컫는 지명으로 통용된다. 산제당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 당굴앞들 : 나말과 오야굴 사이에 있는 들.
- 당산재 : 나말 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산줄기. 근처에 산제당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노인들도 당재 지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 대동(垔洞) : 벌말의 동북쪽 부분을 일컫는 지명. 옛 지리지에 나오는 지명으로 과거에는 벌말과 그 주변을 일컫었던 것으로 보인다.
- 대동샘 : 벌말의 가운데에 있는 샘.
- 대락굴재 : 체루굴과 죽정동 대락굴을 연결하는 재. 과거에는 통행량이 많았던 고개이다.
- 대리(垔里) : 1960년대 신대리 3구(木里, 垔里, 新村) 중 1구.
- 대숲말 : 오야굴 마을의 서쪽 부분. 새쪽가티 바로 동쪽 부분이다.
- 독쟁이재 : 마산굴 상부에서 남동쪽으로 산을 넘어 죽정동 독쟁이로 넘어가는 재.
- 뒷들 : 벌말 북쪽에 있는 들. 뒷들보에서 물을 댄다.
- 뒷들보 : 정거장번덕지 서남쪽에 있는 보. 벌말의 북쪽에 있는 뒷들에 물을 댄다.
- 뒷메 : 벌말 마을 서북쪽 관창리와의 경계가 되는 산. 서낭댕이재의 남쪽이다.
- 뒷산 : 장승백이 마을 서쪽에 있는 산. 정심원 뒷산이다.
- 듸바위 : 사기장굴 저수지 동쪽 산 중턱에 있는 바위.
- 마산(馬山) : 신대리의 북동쪽 마을. 나말의 남동쪽이다. 마산굴의 입구에 있다.
- 마산굴 : 마산 마을의 동쪽 골짜기. 마산재를 통하여 청라면 장산리 서산밑으로 통한다. 과거에는 통행량이 많던 재이다.

- 마산재 : 마산굴에서 청라면 장산리 서산밑으로 통하는 재.
- 마산치(馬山峙) : 마산재. <1911, 朝鮮地誌資料>
- 말골 : 사기장굴 저수지 북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
- 말무덤보 : 용머리 마을과 점촌 마을 사이에 있는 보. 진보와 검은배보 사이에 있다. 과재비 마을 서쪽의 검은배들에 물을 낸다.
- 매봉재 : 나말 마을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사기장굴과 붓당굴 사이에 있다. 높이 182.2m 이다.
- 모래논 : 굴통내에 있는 논. 뒷들보의 서쪽에 있다.
- 모자봉 : 모재봉의 다른 이름.
- 모재봉 : 신대리 북쪽 끝에 있는 봉우리. 주포면 관산리와와의 경계이다. 높이 317.0m 이다.
- 목리(木里) : 나말의 한자 표기. 1960년대 신대리 3구(木里, 垌里, 新村) 중 1구.
- 무상수리 : 벌말, 안태, 장승백이 마을로 둘러싸인 들. 하천의 서쪽 부분이다.
- 무재산(武才山) : 주교면 신대리 나말 북쪽의 산. <1911, 朝鮮地誌資料>
- 방죽밑 : 작은과재비 과재비방죽 밑에 있는 논.
- 배나무골 : 작은과재비고랑의 윗 부분.
- 벌리(伐里) : 벌말의 한자 표기.
- 벌말 : 신대리의 중심 마을. 오야굴의 남쪽, 안태의 동쪽에 위치한다. 10여 기의 고인돌이 있다.
- 복숭아골 : 사기장굴 안쪽 너른골에서 북쪽으로 뻗은 작은 골짜기.
- 붓당굴 : 나말 마을 북쪽의 골짜기.
- 비선거리 : 마산 마을과 사기장굴저수지 사이의 산모퉁이.
- 빼보 : 신대교 동쪽에 있는 보. 신대교와 우륵지보 사이에 있다.
- 사기장굴 : 신대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안에 저수지가 있는 큰 골짜기이다.
- 사기장굴저수지 : 사기장굴 안에 있는 저수지.
- 사당터 : 셋바탕이 마을에 있는 작은 지명. 셋바탕이 동남쪽에 있는 집 한 가구를 일컫는다.
- 사무리보 : 장승백이 마을 앞에 있는 보. 진보와 췌기보 사이에 있다.
- 산너머골 : 사기장굴저수지 북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 말골과 채석골 사이에 있다.
- 상구재 : 안태의 북쪽 부분에서 벌말로 통하는 낮은 재. 주변이 밭으로 이용된다.

- 새말 : 창머리 마을의 다른 이름.
- 새암골 : 어추리 마을의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국수봉과 탕관봉 사이에 있다.
- 새쪽가티 : 오야골과 서낭당이재 사이의 완경사지. 밭으로 이용된다.
- 새터 : 신대리 남쪽 마을. 군들재와 과재비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생여집번덕지 : 무상수리의 동쪽 하천 주변을 말함. 생여집보의 바로 위쪽이다.
- 생여집보 : 용둠병보와 췌기보 사이의 보. 생여집번덕지 바로 남쪽이다.
- 서낭당이 : 용머리 마을과 작은과재비고랑 사이로 뻗은 산줄기의 끝에 있었다.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었다.
- 서낭당이재 : 오야골에서 관산리로 통하는 재. 청라면 장산리 서산밑에서 마산재를 통하여 마산, 오야골을 거쳐 관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위에 서낭당이가 있다.
- 셋바탕이 : 나말과 마산 마을 사이의 마을. 마을 주변의 들을 말하기도 한다.
- 세마상골 : 마산골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 솔미들 : 과재비 마을 입구에서 방죽밑에 이르는 들. 도로의 동쪽 부분을 일컫는다.
- 솟장재 : 어추리 마을에서 왕골로 넘어가는 재.
- 쇠절굴 : 용머리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두 갈래로 되어 있다. 함박굴과 작은쇠절굴 사이에 있다.
- 수박재 : 마산 마을 남쪽에 있는 산 봉우리. 제루굴과 마산재굴 사이에 있다.
- 신대1리 : 1반 외얏골, 2반 나물, 3반 마산.
- 신대2리 : 1반 벌리(대동), 2반 안터, 3반 장승동, 4반 어추리, 5반 용머리, 6반 짐촌.
- 신대3리 : 1반 과재비, 2반 새뜸, 3반 난민촌, 4반 군들재.
- 신대4리 : 1반 신촌.
- 신대교 : 신대리 남쪽, 국도 21호선이 통하는 다리이다. 회다리라고도 한다.
- 신리(新里) : 신대리 창머리(새말)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신촌(新村) : 창머리 마을의 다른 이름. 새말의 한자 표기이다. 1960년대 신대리 3구(木里, 垓里, 新村) 중 1구.
- 신촌교 : 창머리 마을 남쪽에 있는 다리. 은포리로 통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지난다.
- 췌기들 : 고라실과 장승백이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하천의 동쪽에 있는 들이다.
- 췌기보 : 무상수리 남쪽에 있는 보. 사무리보와 생여집보 사이에 있다.
- 아래뜸 : 창머리 마을의 남쪽 부분.
- 아래뜸 : 과재비 마을의 서쪽 부분.

- 아이벤산 : 신대리 남쪽 개근너 마을 남쪽에 있는 산. 대천동과의 경계이다. 삼각점이 있다. 높이 39.6 m이다.
- 안태 : 벌말의 서남쪽 장승백이 마을의 북쪽에 있는 마을.
- 안태고개 : 안태재빠기의 다른 이름.
- 안태재빠기 : 안태에서 관창초등학교로 통하는 재. 시멘트 포장도로가 지난다.
- 어초리(於草里) : 어추리의 한자 표기.
- 어초리(於艸里, 너츄리) : 어추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어추리 : 신대리의 중앙에 있는 마을. 용머리 마을의 동북쪽에 있다.
- 여수굴 : 파재비 마을의 동쪽 골짜기. 지장굴재를 통하여 죽정동 지장굴과 연결된다.
- 오야굴 : 신대리 서북쪽 마을. 벌말의 북쪽이다.
- 오야굴뒤 : 오야굴 마을 뒤쪽의 골짜기. 당산재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왕굴 : 어추리 마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 용두(龍頭) ; 용머리의 한자 표기.
- 용둑병보 : 어추리 마을 앞에서 벌말로 들어오는 다리 바로 위쪽에 있는 보. 개장굴 앞뜰에 물을 댈다. 이곳에서는 예부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용머리 : 신대리 중앙부에 있는 마을. 파재비의 북쪽, 어추리의 서남쪽에 있다.
- 용머리재 : 용머리 마을과 어추리 마을 사이의 낮은 고개. 솔밭 사이를 지난다.
- 우룩지보 : 점촌 마을 남쪽에 있는 보. 검은배보와 빼보 사이에 있다.
- 원들 : 창머리 마을 동쪽에 있는 들이다. 간척지가 아닌 원래부터 있었던 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원들보 : 창머리 마을 동쪽에 있던 보. 창머리 마을 동쪽의 원들에 물을 댈다. 신대리 하천의 말단에 있는 보이다.
- 위뜸 : 창머리 마을의 북쪽 부분.
- 위뜸 : 파재비 마을의 동쪽 부분.
- 음산 : 수박재의 북쪽 부분. 마산 마을의 남쪽 부분으로 북향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쇠절굴 : 용머리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쇠절굴의 남쪽에 있다.
- 작은파재비 : 파재비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파재비 마을과 용머리 마을 사이에 있다. 평평하고 넓은 골짜기이며 소류지가 있다.
- 작은파재비고랑 : 작은파재비 동쪽, 봉황산 정상으로 향한 골짜기.
- 장고개 : 장승백이의 다른 이름. 관창리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장승백이 : 신대리 중앙부의 서쪽에 있는 마을. 점촌과 안태 사이에 있다. 마을과 하천 사이의 길옆에 장승이 있었다고 전한다.
- 장승백이 : 점촌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 21호 국도가 통한다.
- 재터굴 : 제루굴의 다른 이름.
- 절굴 : 마산굴 상부, 큰참나무굴 입구에서 동쪽으로 뺀 골짜기.
- 절굴 : 신대리 남쪽 난민촌 동북쪽 골짜기.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절굴들 : 신대리 남쪽 난민촌과 새터 사이의 들.
- 절터 : 난민촌 동북쪽 절굴 안에 있다.
- 절터 : 제루굴 저수지 동쪽 산허리에 있다.
- 절터굴 : 오야굴 북쪽의 골짜기. 절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점촌 : 신대리 서쪽 마을 장승백이 마을과 창머리 마을 사이에 있다. 1960년대까지 용기그릇을 굽던 가마가 2~3곳 있었다.
- 정거장번덕지 : 나말 남쪽 현 새마을 회관 자리이다. 이곳은 과거 마산재에서 서낭댕이재로 통하는 큰 길 옆이다.
- 제루굴 : 벌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대락굴재를 통하여 죽정동 대락굴로 통한다.
- 제루굴저수지 : 제루굴에 있는 저수지.
- 제루번덕지 : 왕굴의 북쪽, 제루굴 서쪽에 내민 평평한 지형.
- 켈월 : 제루굴 서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마산 마을과 벌말 사이에 있다.
- 켈월골 : 제루굴의 다른 이름.
- 죽림리(竹林里, 디션말) : 신대리 대숲말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작은참나무굴 : 마산굴에서 남쪽으로 뺀 골짜기. 큰참나무굴의 서쪽에 있다.
- 지장굴재 : 과재비 마을에서 죽정동 지장굴로 넘어가는 재.
- 진보 : 장승백이 마을과 용머리 마을 사이의 보. 건보와 사무리보 사이에 있다.
- 진틀 : 마산 마을 남쪽의 들. 마산 마을과 벌말 사이에 있는 들이다.
- 질굴재 : 사기장굴 안쪽 너른골에서 질굴(중질굴)로 통하는 고개.
- 질굴재 : 사기장굴에서 청라면 장산리 질굴로 넘어가는 고개. 안질굴의 사기장굴로 통한다.
- 창머리 : 신대리의 서남쪽 끝에 있는 마을. 과거 해안에 위치했던 마을이다. 대천간척지 축조로 인구가 증가된 마을이다. 신촌이라고도 한다.
- 채석골 : 사기장굴저수지 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 질굴재의 서쪽에 있다.
- 첫바지들 : 어추리 마을 앞에서 벌말로 들어오는 다리 바로 남쪽에 있는 들.

첫바지보에서 물을 댄다.

- 첫바지보 : 별말의 남쪽 사기장굴에서 내려오는 내와 왕굴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쳐지는 곳에 있는 보. 용둠병보 바로 남쪽의 첫바지들에 물을 댄다.
- 청룡안 : 어추리 마을 남쪽에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안쪽 들을 일컫는 말. 어추리 마을에서 보아 좌청룡의 안쪽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큰참나무굴 : 마산굴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 탑앞 : 별말 마을의 남쪽 끝에 있는 논을 말함.
- 탕관봉 : 어추리 마을 동쪽에 있는 봉우리. 193.8m이다. 옆에 있는 국수봉과 함께 탕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파자비점(巴自非店) : 신대리 파재비 마을 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파재비 : 신대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머리와 새터 마을 사이에 있다. 낮은 산 능선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 파재비방죽 작은파재비에 있는 소류지.
- 함박굴 : 용머리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쇠질굴의 북쪽에 있다. 외줄기로 들어간 골짜기이다.
- 회다리 : 신대교의 다른 이름.



신대리 산불(1996)



신대리 전경(2008)

5. 은포리(隱浦里)

본래 보령군 주포면 지역으로서 앞에 개(바다)가 있으므로 은개라 부르고 은포(隱浦)로 표기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평리(內坪里), 간평리(間坪里), 중평리(中坪里), 외평리(外坪里) 신촌(新村), 장항리(獐項里), 대동(臺洞) 일부를 병합하여 은포리라

하여 주포면에 편입하였다. 1989년 4월 1일 주교면의 분리 독립으로 주교면에 속하게 되었다.

- 가가말재 : 강가말재의 다른 이름.
- 가그말재 : 은포리 북쪽 끝에 있는 재. 오천면 오포리 가그말로 넘어간다.
- 가운데빨 : 간디빨의 중심 마을이다. 새말과 양지뜸 사이에 있다.
- 간디빨 : 은포리의 가장 오래된 중심 마을. 원래는 은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안빨과 밧빨 사이에 있다. 원래는 해안에 위치했었으나, 간척사업으로 해안과 떨어져 있다. 노루목, 양지뜸, 가운데빨, 새말로 구분된다.
- 간평(間坪) : 간디빨의 한자 표기.
- 간평리(間坪里) : 은포리 간디빨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갓골 : 담번데기 마을의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논으로 이용된다.
- 강가말재 : 뒤뜰에서 간디빨로 통하는 낮은 재. 간디빨이 강씨의 집성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광재 : 간디빨 노루목 뒤에 있는 낮은 산. 높이 31.5m이다.
- 구간사지 : 간디빨과 밧빨 남쪽에 있는 간척지이다. 은포저수지에서 물을 대었다. 일제시대 일본인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가 막았다고 전한다.
- 구명재 : 안빨 북쪽에 있는 산. 옥고개의 남동쪽이다.
- 궁뜰 : 밧빨과 주교리 사이에 있는 들. 옛날 왕실에서 막아 형성된 들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궁아난 마을과 밧빨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다.
- 끄름목 : 은포리 수박골을 통하여 송학리 부엉이들로 넘어가는 재. 부엉이들은 송학리 서북쪽 산으로 은포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남양 : 남양군도의 다른 이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 남양군도 : 안빨의 동쪽. 즉, 아느래끝 동쪽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사구(砂丘)였던 곳이다. 이곳에는 소금을 굽는 벗이 여러 곳 있었고, 인부들을 위한 막걸리집 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은개(간디빨) 마을 사람들이 술을 먹으러 갈 때, 남쪽에 있는 막걸리집이라는 은어로 '남양군도'라고 하여 지명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일제시대 남양군도로 징용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뒤로 생겨난 이름이다.
- 낭성바위 : 밧빨 새말 한전아파트자리에 있던 바위. 아파트 축조로 없어졌다.
- 내벌리(內伐里) : 안빨의 한자 표기.

- 내평(內坪) : 안빨의 한자 표기.
- 내평리(內坪里) : 안빨의 옛 한자 표기.
- 노루목 : 간디빨 노루목 마을 뒤 광재 북쪽에 있는 목. 산업도로가 통한다.
- 노루목 : 은포리 간디빨 마을의 동쪽 부분. 은포저수지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농바위 : 옷샘골 북쪽에 있는 바위.
- 눈썹누리 : 수박굴재와 끄름목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219.5m이다.
- 능생이 : 밧빨의 동남쪽 마을. 새말의 남쪽이다.
- 달동네 : 밧빨 새말 한전아파트 밑에 있는 마을.
- 담번데기 : 은포리 북쪽에 있는 마을. 용모골의 입구에 있다. 원평이라고도 한다.
- 당산 : 간디빨 마을 동쪽, 노루목 마을에 있는 낮은 산. 노루목 마을과 저수지 사이에 있다. 8·15 해방 전까지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다.
- 당산 : 안빨 마을의 가운데에 남쪽으로 뽕쪽하게 돌출한 산.
- 당산들 : 은포저수지 북쪽 당산의 동북쪽에 있는 들.
- 당산점(堂山店) : 은포리 노루목마을 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대문앞들 : 간디빨의 가운데빨 마을 앞에 있는 들.
- 대추나무고개 : 안빨 육골에서 뒷들로 통하는 재.
- 돌밭머리 : 간디빨 당산 마을 산말이 남쪽에 있는 밧. 원안의 북쪽 산업도로의 남쪽이다.
- 뒷골 : 간디빨과 안빨 마을 사이의 뒷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뒷들 : 간디빨과 안빨 마을 사이에 있는 들.
- 뒷만 : 밧빨 중심 마을 동북쪽 언덕 위.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다.
- 등잔걸리 : 채석장 바로 위에 있는 묘자리. 풍수상 등잔걸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밧마루 : 노루목 마을에서 북쪽 산 능선으로 오르는 길.
- 밧빨 : 은포리 동쪽에 있는 마을. 아래뜸, 위뜸, 새말, 능생이로 구성된다.
- 밧빨 : 밧빨의 다른 이름. 밧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름이다.
- 밧뜰 : 밧빨 남쪽에 있는, 일제시대 이전에 막은 간척지.
- 밧터 : 남양군도 지역에 있던 옛 염전을 일컫는 말.
- 별보는바위 : 은포리 북쪽 끄름목 남쪽 산능선에 있는 바위. 절벽을 이루고 있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한다.
- 보뚝 : 밧빨과 은포저수지를 연결하는 제방이다. 현재는 길로 이용된다. 일제 시대

이전에 만든 간척지의 제방이다.

- 봉대산 : 봉산의 다른 이름.
- 봉두라지 : 담번데기 마을 서북쪽, 마을 쪽으로 내려온 두 봉우리를 통칭한다.
남쪽 봉우리는 101.0m이다.
- 봉산 : 은포리 간디빨 마을 서북쪽에 있는 산. 옥미봉에서 받아 천북 홍양곶으로 연결하던 조침산 봉수대가 있었다. 봉수대는 최근 훼손되었다. 높이 228.9m이다.
- 북당골 : 노루목 산밑이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봉산의 동쪽이다.
- 산밑이 : 노루목 마을의 북쪽 부분. 산업도로의 북쪽이다.
- 산재골 : 은개 마을에서 송학리 탑선이고랑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
- 삼형제바위 : 노루목 마을 북쪽 밧마루 옆에 있는 바위.
- 새말 : 간디빨의 남서쪽 마을. 새터라고도 한다.
- 새말 : 밧벌 마을 서북쪽에 있는 구릉지를 일컫는 말이다. 집이 없을 때도 새말이라고 불렀다. 한전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서낭댕이 : 옥고개 꼭대기에 있었다. 신수로 팽나무가 있었다고 전한다.
- 석전들 : 간디빨 당산 마을 산밑이 남쪽에 있는 밭. 산업도로의 바로 북쪽이다.
- 수박골 : 용모골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통하여 송학리 동북쪽 산의 서부능선을 지나 오천면 오포리 가그말로 넘어가기도 한다. 송학리 척굴 골짜기를 은포리에서 수박골로 불러 붙여진 이름이다.
- 수박골재 : 담번데기 마을 서쪽 큰고랑에서 송학리 척굴의 가그말재골로 넘어가는 재. 송학리 척굴의 가그말재골을 은포리에서 수박골로 부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신동(新洞) : 은포리 새말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신촌(新村) : 새말의 한자 표기.
- 씨름판 : 밧빨 이막재 꼭대기의 평평한 부분.
- 아느래골 : 안빨 당산의 남쪽 끝.
- 아래뜸 : 밧빨의 남쪽 부분.
- 안빨 : 은포리의 서남쪽 마을이다. 대천간척지 축조 이전에는 대부분 장벌이었으나 간척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이주해와 인구가 급증하였다. 옛 장벌을 따라서 길게 늘어선 마을이다.
- 안산 : 안빨 당산의 다른 이름.
- 알미재 : 안빨 중심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고개. 뒷들로 통한다.
- 양지뜸 : 간디빨의 중심 마을이다. 노루목과 가운데빨 사이에 있다.

- 양지말 : 간디빨 양지뜸의 다른 이름.
- 여덫수문 : 대천간척지 제방에 있는 수문. 문이 8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영전들 : 영전들 동쪽에 있는 마을. 은포 2리의 3반이다.
- 영전들 : 옷샘골 남쪽에 있는 들. 이곳 산의 형국이 승 字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옥고개 : 은포리와 송학리 사이의 고개. 산업도로가 통한다. 성황당이 있었다.
- 옥고개골 : 옥고개 동쪽 골짜기.
- 옷고개 : 옥고개의 다른 이름. 여지도서에 ‘칠현(漆峴)’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옷고개’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옷샘 : 옷샘골 안에 있는 샘. 물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옷샘골 : 노루목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원담골의 남쪽에 있다.
- 외벌리(外伐里) : 밭벌의 옛 표기.
- 외평(外坪) : 밭빨의 한자 표기.
- 용모골 : 은포리 북쪽 담번데기 마을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가그말재로 통한다. 주민들은 이곳이 용의 머리 형국인데, 등잔걸이 형국이 있어 머리를 들렸다고 한다. 용목골이 변하여 용모골이 되었다고 전한다.
- 원담골 : 담번데기 마을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골짜기. 갯골과 옷샘골 사이에 있다.
- 원안 : 밭벌 마을과 저수지 사이에 있는 들. 보퓌의 북쪽 부분이다. 아주 오래전에 만든 간척지이다.
- 원평(元坪) : 담번데기의 다른 이름. 은포리 마을이 모두 坪자를 써서 표기하므로 이곳을 원평이라 붙인 것으로 보인다.
- 위뜸 : 밭빨의 북쪽 부분.
- 육골 : 안빨의 서쪽 끝. 구멍재의 남쪽이다. 골짜기의 대부분은 송학리에 속하고 동쪽 일부가 은포리에 속한다.
- 은개 : 원래는 간디빨 지역을 일컫던 지명이다. 은포리의 어원이 되었다. 은포리 지역 전체를 일컫기도 한다.
- 은포1리 : 1반 양지말, 2반 가운데빨, 3반 새말.
- 은포2리 : 1반 능생이, 2반 안동네, 3반 영전들, 4반 담번데기.
- 은포3리 : 1반 내평, 2반 내평, 3반 남양, 4반 남양.
- 은포저수지 : 간디빨과 밭벌 사이에 있는 저수지.

- 이막재 : 밧벌 중심 마을에서 새말 북쪽을 통하여 대덕굴로 올라가는 재. 밧벌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이막재 : 은포리와 주교리 사이에 있는 재. 보령화력으로 가는 산업도로가 통한다.
- 인정굴 : 담번데기 마을 남쪽에 있는 들. 산업도로의 북쪽이다.
- 작은고랑 : 농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 큰고랑과 큰고랑 사이에 있다.
- 작은으름숙굴 : 노루목 산밧이 마을 서쪽, 북당굴의 서북쪽 골짜기. 큰으름숙굴의 북쪽에 있다.
- 장벽고랑 : 담번데기 마을 서북쪽에 있는 봉두라지 사이의 골짜기.
- 장평리(獐坪里) : 노루목의 옛 한자 표기.
- 장항(獐項) : 노루목 마을의 한자 표기.
- 장항동(獐項里, 노루목) : 주교면 은포리 ‘노루목’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잣뜰 : 안빨 능생이 북쪽, 방앗간 부근을 이르는 말.
- 잣말랭이 : 가그말재의 다른 이름.
- 정주말 : 옷샘골과 원담굴 사이에 있는 낮은 산줄기. 남쪽은 모두 밧으로 개간되었다. 가옥은 없다.
- 주식굴 : 밧빨 새말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주춤재 : 노루목 마을에 있는 재. 산업도로가 통한다.
- 중벌리(中伐里) : 간디빨의 옛 표기.
- 중평(中坪) : 간디빨의 한자 표기.
- 중평리(中坪里, 중벌) : 은포리 간디벌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채석장 : 용모굴 안에 있는 채석장이다. 수박굴과 용모굴 사이에 있다. 약 1980년대 초 개발이 시작되었다. 아스콘 제조용 자갈을 생산한다.
- 큰고랑 : 노루목 산밧이 마을 북쪽의 큰 골짜기.
- 큰고랑 : 담번데기 마을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수박굴재로 오른다. 작은고랑과 봉두라지 사이에 있다.
- 큰번던 : 노루목 산밧이 마을 서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모두 밧으로 이용된다.
- 큰으름숙굴 : 봉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북당굴의 위쪽이다.
- 팽나무재 : 담번데기와 주교리 대락굴 사이에 있는 재.
- 할미바위 : 안빨 당산 남쪽 간척지 안에 있던 바위. 옛날 갱구할머니가 치마폭으로 나르다가 놓쳤다는 전설이 있었다. 간척사업 이전에도 아랫부분만 물에 잠겼다고 한다. 아랫부분이 침식되어 버섯 모양이었다. 최근에 없어졌다.

- 화루바위 : 담번데기 마을 서북쪽 장벽고랑 위에 있는 바위.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가운데에 불을 피워 놓고 쪼었다고 한다.



남양군도(1996)



은포리 갯벌(2008)

6. 주교리(舟橋里)

본래 보령군 주포면 지역으로 배다리가 있으므로 배다리 또는 주교(舟橋)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궁언내(宮堰內), 거어리(巨於里)와 대동(臺洞), 명계리(鳴溪里) 산천리(山川里)를 합하여 주교리라 하였다.

주포면에 속하다가 1989년 4월 1일 주교면에 속하게 되었고 관내에 면사무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 가재고랑 : 울게 마을 동쪽의 국수봉으로 향한 골짜기이다. 초분골과 지픈고랑 사이에 있다.
- 개자지 : 울게 들판 동북쪽의 평평한 지역이다. 역재의 서남쪽이며 물이 귀하여 거의 밭으로 개간되었다.
- 거어리(巨於里) : 계리의 한자 표기.
- 건널목 : 한솔모탕이에서 해창, 계리로 통하는 큰 길이 지나는 건널목이었다. 위험하여 근래 폐쇄되었고, 2007년 철로 이설로 없어졌다.
- 계리 : 주교리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마을이다. 영척굴의 남쪽에 있으며 한산이씨가 세거한다.
- 계리고랑 : 계리 마을 남쪽에 있는 좁은 들. 안산과 당산 사이에 있다.

- 고상굴: 대터굴 남동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서낭당이 고개로 향해 있다. 보령화력발전소로 통하는 도로가 지난다.
- 끈은드랭이 : 배다리와 주교역 사이에 있는 들이다. 구수배미의 동쪽, 좀 높은 지대에 있던 들이다.
- 공동묘지 : 대터굴 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공동묘지. 영척굴의 서쪽 고개 너머이다. 은포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묘지이다.
- 공동묘지 : 대터굴 입구에 있다.
- 괴포(槐浦, 유통지) : 주교리 게리 마을 당산의 동쪽 끝 부분이 유통이고, 이곳에 있던 포구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구간사지 : 따빡굴 앞에 있는 옛 간척지. 소화2년(1927)에 일본인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가 막았다는 간척지보다 먼저 막은 간척지이다.
- 구간사지 : 주교리 남쪽, 해창 마을 앞에 있는 간척지. 일제시대인 소화 2년(1927) 일본인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가 막았다고 전한다. 탄섬에 의지하여 제방을 축조하였다.
- 구수배미 : 새보와 유통보 사이에 있던 하천 주변의 논이다. 지대가 낮아 사리 때가 되면 바닷물이 범람하여 농민들의 속을 태우던 논이다.
- 구슬 : 궁아난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와 그 안에 있는 마을을 통칭한다. 허너물재를 넘어 게리와 통한다.
- 구원뚝 : 일제시대인 소화 2년(1927) 일본인 마사이 다기다(正井瀧太)가 막은 간척지의 뚝이다.
- 국수봉 : 울게 마을 동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옛날 동제와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현재도 돌 제단이 남아있다고 한다. 높이 139.8m이다.
- 군량 : 울게 마을 북쪽 들 건너에 있는 낮은 산. 무너미재의 서쪽이다. 옛날 군사용 창고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도 7000평의 市 소유지가 있다고 한다.
- 군량들 : 울게 마을 북쪽에 있는 넓은 들.
- 궁뚝 : 궁아난 마을 앞에 있는 제방. 조선시대 왕실에서 만들었다고 전한다. 대부분이 은포리에 속한다. 궁아난에서 은포리 밭뺨로 통하는 길이 지난다.
- 궁뜰 : 대터굴 남쪽의 들. 옛날 왕실에서 간척한 땅이라고 한다. 이곳은 수원이 좋아 왕실에서 간척하였다고 한다.
- 궁아난 : 주교리의 남쪽 부분에 있는 마을이다. 궁뚝의 안쪽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마을 앞에 있는 간척지 제방인 궁뚝이 조선 시대 왕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쪽 들을 궁뜰이라고 하고 마을을 궁아난이라 한다고 전한다.

- 궁언내(宮堰內) : 궁아난의 한자 표기.
- 궁원안 : 궁아난의 다른 이름.
- 내한들 : 매봉 동쪽에 있는 들. 물판구테기의 남쪽이다.
- 다리건너들 : 배다리 건너 소루구지 남쪽에 있는 들.
- 다리계보 : 배다리 바로 위에 있던 보. 울계에서 내려온 내와 합쳐진 곳에 있었다.
- 당산 : 게리 남동쪽에 있는 산. 봉우리가 2개(60.8m, 55.5m)이다. 게리 마을 쪽 중턱에 당터가 있고, 게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당터 : 당산의 서쪽 봉우리 북쪽 능선의 중간쯤에 있던, 게리 마을의 당제터.
- 대동(垸洞,臺洞) : 대터굴의 한자 표기
- 대성마을 : 주교리 북쪽 소루구지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령댐 건설로 미산면 평라리 자라실, 용수리 거무러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30여 가구가 이주하였다.
- 대탑동리(臺塔洞里) : 대터굴의 한자 표기.
- 대터굴 : 주교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 아랫대터굴, 윗대터굴로 나뉜다.
- 동산 : 궁아난 마을 북쪽에 있는 낮은 산.
- 뒹박산 : 게리 마을 남동쪽 당산의 다른 이름. 울계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뒹밭 : 대터굴 북쪽에 있는 봉대산의 사면. 경사가 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든적굴 : 윗대터굴 동쪽에 있는 들.
- 듸부굴 : 울계 마을의 북쪽 부분. 관산리 역말에서 배다리로 통하는 곳에 있었다.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이다.
- 등적굴 : 대터굴의 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 대성 마을의 서북쪽이다.
- 따빱굴 : 궁아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판섬 : 팔봉과 해창 마을 사이에 있는 섬. 구간사지 제방이 지난다.
- 마위 : 아랫대터굴 동쪽에 있는 들.
- 매가리터 : 듸부굴 서쪽 도로변에 있었다. 일제 시대에 현미를 만들던 곳이다. 처음에는 인력으로, 나중에는 3마력짜리 원동기를 사용하여 현미를 만들었다고 한다. 유통보 밑에 중선이 들어와 신고 군산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했다고 전한다.
- 매봉 : 소루구지 입구의 동쪽에 있는 봉우리.
- 매봉재 : 소루구지와 주포면 연지리 가줄 저수지 사이에 있는 산.
- 명계(鳴溪) : 울계의 한자 표기.
- 명계점(鳴溪店, 울계주막) : 주교리 울계 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무너미 : 개리 당산 동쪽 끝. 즉, 유통을 해창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
- 무너미재 : 듬부굴에서 역말로 통하는 낮은 재이다. 물이 혼한 역말에서 물을 넘겼다고 전해지며 현재도 물을 넘긴다고 한다. 군량의 동쪽에 있다.
- 물방아보 : 듬부굴과 매봉 사이에 있는 보. 듬부굴 서쪽의 물방앗간에 물을 대던 보이다.
- 물방앗간 : 듬부굴 서쪽 철로와 냇물 사이에 있었다.
- 물판구데기 : 군량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들. 버드나무보 남서쪽에 있다.
- 밤까시 : 영척굴 앞 들. 구수배미의 서쪽, 좀 높은 곳이다.
- 밤나무골 : 여수고랑의 다른 이름. 근래 마을에서 밤나무를 심어 붙여진 이름이다.
- 방천보(防川淤) : 주교리 울계 마을에 있던 보. <1911, 朝鮮地誌資料>
- 배다리 : 울계 마을과 배다리 마을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옛 문헌에는 舟橋로 표기되어 있다. 옛날에는 냇물의 중앙에 5개의 큰 돌을 쌓아 교각으로 하고 양쪽에서 2m 정도 폭으로 나무를 걸쳐 통행했다고 한다. 다리의 보수에는 배다리, 개리, 영척굴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멀리 고정리와 오천 사람들도 돈을 냈다고 전한다.
- 배다리 : 주교리의 북쪽 마을. 소루구지와 영척굴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산업도로의 북쪽이다. 윗말과 아랫말로 구분된다.
- 버드나무보 : 주교천이 있는 곳이다. 주교리와 주포면 연지리, 관산리의 경계지역에 있다. 과거 사리 때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전한다.
- 비선거리 : 질나달이의 다른 이름. 비석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삼거리 : 21호 국도와 보령화력으로 통하는 산업도로가 만나는 곳이다. 교통량이 많아 혼잡하다. 주교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근래 생겨난 이름이다.
- 상대동(上臺洞) : 윗대터굴의 한자 표기.
- 새보 : 배다리 남쪽 유통보 북쪽에 있던 보. 양쪽 들에 모두 물을 댔다.
- 새암굴 : 울계 마을 남서쪽 골짜기. 여수고랑과 초분골 사이에 있다. 이곳에 좋은 샘이 있어 울계 마을의 식수원이 되었다.
- 새태 : 울계 마을의 중앙 부분이다. 과거의 울계 마을은 마을의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는 듬부굴이 있었으며 그 사이는 취락이 없었다(大正 4년 지형도). 일제시대에 새로 들어선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서낭탱이 : 궁아난의 큰고랑에서 따박굴 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다. 신수는 느티나무이다.
- 서낭탱이 : 대터굴과 배다리 사이에 있다.

- 서낭땡이고개 : 배다리에서 대터굴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 이곳에 서낭땡이가 북쪽으로 있었고, 신수로는 벚나무 등 잡목이 있었다. 도로의 확장으로 모두 없어졌다.
- 서낭땡이재 : 아랫대터굴과 위대터굴 사이에 있다.
- 섬바위 : 팔봉 마을 서쪽 산 끝에 있는 바위. 섬(벼를 담는 섬)처럼 생긴 큰 바위라 붙여진 이름이다.
- 섬배미 : 게리 마을 동쪽 논 가운데에 있던 높은 지형이다. 주변 논보다 1m 정도 높아 논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던 곳이다. 뱀이 우글거려 주변에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라고 하며, 면적은 1,050평이었다고 한다.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 소루구지 : 주교리 북쪽, 남쪽으로 열린 골짜기. 물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작은 마을이었으나 대성마을이 생겨 인구가 급증하였다.
- 소루구지재 : 구루구지 마을에서 주교면 연지리로 넘어가는 고개. 매봉재 있는 곳으로 넘는 고개이다.
- 소목아지 : 소의머리의 다른 이름.
- 소의머리 : 팔봉 마을 남서쪽 끝 부분.
- 송아치바위 : 대터굴 북쪽 든적굴의 위에 있는, 송아지 발자국이 있다는 바위.
- 수차보 : 물방아보의 다른 이름.
- 신간사지 : 구교리 남쪽에 있는 1960년대 초에 막은 간척지.
- 신선굴 : 대터굴 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
- 아랫대터굴 : 대터굴의 남쪽 부분.
- 아랫말 : 배다리 마을의 남쪽 부분, 도로와 인접하여 한 줄로 늘어서 있다. 청룡뿌리의 서쪽이다.
- 아랫유통 : 유통보의 다른 이름.
- 안산 : 게리 남쪽, 따박굴과의 사이에 있는 산. 게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삼각점이 있다. 높이 57.4m이다.
- 안산 : 배다리 마을과 대터굴 마을 사이에 있는 산. 높이 36.5m이다.
- 안산재 : 안산 바로 북쪽에 있는, 배다리 윗말에서 대터굴로 통하는 고개.
- 여수고랑 : 울계 마을의 남서쪽 골짜기. 장승백이와 새암골 사이에 있다. 밤나무골이라고도 한다.
- 역재 : 주포면 관산리 역말과 관창리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과거에는 교통량이 많았던 고개이다.

- 영척굴 : 계리 마을과 배다리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大正 4년(1915)에 측도한 지형도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오리나무굴 : 팔봉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 들어서 있다.
- 옷나무굴 : 팔봉 마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옷샘 : 국수봉 북쪽 지픈골 앞 개자지에 있는 샘. 물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용의목 : 궁아난에 있는 고개. 팔봉으로 향한 산줄기의 목에 해당된다.
- 용호불 : 팔봉 마을의 남동쪽 끝 부분. 산줄기가 뽀족하게 나와 있다.
- 울계 : 주교리의 동북쪽 마을로 주교면의 중심 마을이다.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보건지소 등이 위치하며 도로변에는 식당, 자동차수리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일제 시대에는 한동안 오일장이 섰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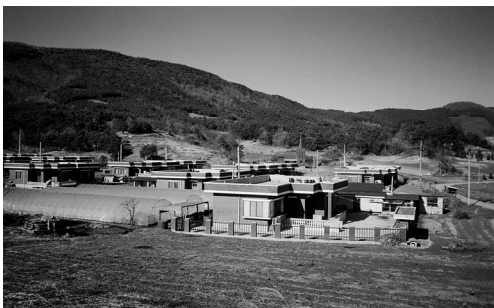
보령화력발전소 건설, 아주자동차대학 설립, 관창농공단지 건설 등으로 크게 발전하는 마을이다. 일제시대 초기에는 마을의 북쪽 부분(듬부굴)과 남쪽 부분(울계)에만 취락이 있었다.

- 원안 : 계리 남쪽에 있는 조선 시대에 막은 간척지. 제방 밖에 있는 일제시대 마사이다기다(正井瀧太)가 막은 간척지와 비교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세원사가 있다.
 - 윗말 : 배다리 마을의 서북쪽 부분, 골짜기에 길게 들어서 있다. 안산재를 통하여 대터굴로 통한다.
 - 윗말고랑 : 배다리 마을 윗말 앞에 있는 들.
 - 유통 : 계리 마을 당산의 동쪽 끝 부분이다. 주교천이 스쳐 지나간다. 이곳은 고정, 송학, 은포리 사람들이 대천장을 보러가던 큰 길이 통하였다.
- 보령 지방에서 징검다리를 보통 유두다리(젓꼭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징검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리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유통다리 : 옛 주교역에서 영척굴로 통하는 곳에 있던 다리. 널판으로 놓았었다고 한다.
 - 유통보 : 영척굴과 주교역 사이에 있는 보이다. 새보의 남쪽이다. 붓둑으로 통행하기도 하였다. 아랫유통이라고도 하였다.
 - 이막재 : 대터굴 남쪽 궁뜰에서 은포리로 넘어가는 고개.
 - 장승백이 : 울계 마을 남쪽 한술모랭이와 여수고랑 사이에 있다. 마을의 노인들도 장승이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옛날 서울 대가집에서 초상이나 상여를 메고 남쪽으로 오는데, 중간에 상여줄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 장승이 있을 것이니,

그곳에 묘를 쓰라고 지시하였다. 그곳이 바로 명당이라는 것이다. 역군들이 상여를 메고 이곳까지 왔으나 상여줄은 끊어지지 않고 너무 어려워 일부러 끊어버리고 이곳에 묘를 썼다고 한다. 이 일 때문에 장승 없는 장승백이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점촌 : 울계 마을 안의 작은 마을 이름. 새태와 듬부굴 사이에 있다. 과거에 3개의 가마가 설치되었으나 신대리 점촌으로 옮겼다고 전한다.
- 조농장 : 따뻍굴 남쪽 구간사지 위에 있는 긴 논이다. 일제시대 일본인의 소유였는데, 마름이 조가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주교(舟橋) : 배다리의 한자 표기.
- 주교1리 : 1반 새터, 2반 초분골, 3반 듬부굴.
- 주교2리 : 1반 배다리, 2반 용척굴, 3반 상대동, 4반 하대동, 5반 게리.
- 주교3리 : 1반 궁아난, 2반 팔봉, 3반 팔봉.
- 주교리(舟橋里) : 주교리 배다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주교역 : 울계 마을 서쪽에 있던 기차역. 임시역으로 비둘기호 열차만 정차하였다.
- 주교천 : 주교리의 중심을 흐르는 내. 주포면에서 발원한다.
- 지픈고랑 : 국수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개자지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 지함재 : 게리 마을과 영척굴을 잇는 재. 토정 이지함 선생이 지나다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진굴 : 국수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관창리와 의 경계를 이룬다.
- 진틀 : 주교리 대터굴과 송학리 밭뺨 새말 사이의 작은 마을.
- 질나달이 : 옛날 역말에서 듬부굴을 통하여 배다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 옆에는 3자 정도 되는 비석이 있었는데, 이 비석을 세우면 마을의 과부가 나간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실제 그랬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언제나 넘어뜨렸다고 한다. 이 비석의 비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었다고 한다. 비석의 좌대는 김노창 씨 집 마당 옆으로 옮겨져 있다.
- 철뚝안 : 울계 마을 서쪽 21번 국도와 철도 사이에 있는 들.
- 청룡뿌리 : 소루구지 입구, 배다리 마을 아래뜸의 동쪽 끝. 청룡산의 남쪽 끝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산 : 소루구지와 배다리 윗말 사이에 있는 산.
- 초분골 : 울계 마을 동쪽의 골짜기이다. 새암굴과 가재고랑 사이에 있다. 옛날 초분을 했었다고 전한다.

- 큰고랑 : 궁아난의 동쪽 부분. 해창 마을의 앞이다.
- 팔봉 : 주교리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봉우리가 8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취락이 없었으나 대천간척지 축조 후 큰 취락이 들어섰다.
- 팔봉너머 : 팔봉 마을의 최 남쪽 부분. 간척사업 이전에는 장벌이었다.
- 팔봉다리 : 해창교의 다른 이름.
- 팽나무재 : 아랫대터굴 남서쪽에 있는 재. 은포리 담변데기로 통한다.
- 하고개 : 주교리, 연지리에서 오천면 교성리로 넘는 고개. 하고개로 오르는 길을 경계로 주교면과 주포면이 경계한다.
- 하대동(下臺洞) : 아랫대터굴의 한자 표기.
- 한솔모탕이 : 울계 마을의 남쪽, 21호 국도변 모퉁이. 진굴과 여수고랑 사이이다.
- 해망산 : 게리 마을 남동쪽 당산의 다른 이름. 울계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해창교 : 팔봉과 창미 사이의 다리.
- 허너물재 : 궁아난의 구슬에서 게리로 통하는 재.
- 화장굴 : 은포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묘지 안에 있는 골짜기. 밭으로 이용된다. 인가가 없고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과거에 화장을 했던 곳으로 보인다.
- 황소목굴 : 소루구지 입구에서 서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



대성 마을(1996)



옛 배다리 석재(1996)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최경호(58)	주교면 고정리 170	사당굴	이규대(56)	주교면 신대리 474	(벌말)
오은주(50)	주교면 고정리 170	사당굴	이용상(69)	주교면 신대리 349	(오야굴)
문종민(62)	주교면 고정리 234-2	한여	인춘식(69)	주교면 신대리 311	(오야굴)
이복구(62)	주교면 고정리 226	마동	김재구(59)	주교면 신대리 1137	(창머리)
오명근(68)	주교면 고정리 197	고만	박용규(70)	송학리 132	бат산고래
강국신(69)	주교면 주교리 886		김선규(70)	송학리 338	안산고래
이주복(69)	주교면 주교리 381		최병근(58)	고정리 340-5	안산
김정환(61)	주교면 주교리 576-3		천창호(82)	송학리 555	양지뜸
김노창(70)	주교면 주교리 82-3		한병기(74)	송학리 88	증뜸
이덕호(58)	주교면 주교리 754		김경옥(55)	송학리 597	상송도
이성규(73)	주교면 주교리 347		장인덕(56)	송학리 743	하송도
강신국(64)	주교면 은포리 567	노루목	한시호(78)	관창리 226	
김운규(60)	주교면 은포리 500	밭빨	편춘성(61)	관창리 728-4	
최영남(69)	주교면 은포리 790	안빨	한양호(78)	관창리 222	
한대봉(84)	주교면 신대리 865	(용머리)	복완채(75)	관창리 611	
김규석(71)	주교면 신대리 985-60	(난민촌)	한상기(70)	관창리 230	
유병희(61)	주교면 신대리 189	(과재비)	신정섭(71)	관창리 201	
한상구(61)	주교면 신대리 824	(어추리)	윤병운(81)	관창리 612	
최재구 ()	주교면 신대리 산 23-1	(장승백이)			